

일주문

이철수 초청 목판화 전시회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이사장 정산 스님은 오는 5월 10일까지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이철수 목판화가 초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강정마을 생명평화법회
광주전남전법단회장 대요 스님은 4월 25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강정마을 불자회와 함께 생명평화법회를 봉행했다.

수륙대재 및 경료잔치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5월 31일 세월사 회주 전우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제5회 낙동강 방생 수륙대재 및 경료잔치를 연다. (053) 616-8080

개국 기념 수계대법회
이재원 BBS 불교방송 사장은 5월 12일 불교방송 개국 22주년을 맞아 설정 스님을 모시고 기념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해광사 환경개선기금 보시
류흥우 보덕학회 이사장은 4월 25일 동국대 불교대학에 비구니 수행관 해광사 환경개선기금 3000만원을 보시했다.

“대북사업 새로운 20년 준비해야”

창립 20주년 맞은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 20여 전 대북지원을 하겠다며 결성된 불교단체가 있다. 바로 (사)조국통일평화불교협회(이하 평불협)이다. 평불협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평불협 창립 20돌 기념법회’를 가졌다. 새로운 20년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사진·동국대 정각원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대북지원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통일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잃는 거다. 통일이 민족적 사명이기도 하지만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우리 불교는 대북 지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말씀을 열었다.

법타 스님의 이 한마디는 현 정부에게 가하는 따끔한 질책이다. MB정부 들어서 대북 지원은 인색해졌고 결국 남한의 안전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북지원은 방향을 잃었고 북한은 기어올라 허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고 탈북자 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다. 스님은 이

런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한 달에 밀가루 60톤을 보냈죠. 그러면 그 양으로 7천 7백 명이 국수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북 지원 사업이 축소 돼 그만큼의 양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대북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미국 유학을 하면서다. 당시, 미국 현지에는 대북지원 관련 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세미나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불자는 법타 스님 혼자뿐이었다. 그러던 중 스님은 1989년 제 3차 세계청년학생축제 기간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라는 것을 알았죠. 세미나, 강연 등 이론정립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도적 동포애를 가지고 그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죠. 결국 밥이 통일이요 평화요 삶의 희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 다. 그렇게 북한 현지에 국수 공장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후 스님은 8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대북지원과 남북불교교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스님은 불교도 대북지원을 통해 꾸준히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사업을 모두 축소시켜 버렸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대북지원 사업이 다시 활성화 돼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가올 20년은 새로운 통일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교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혜숙 기자

“영결식 여비 모아 기금 전달”

통도사 동행에 7천 만원 기탁

통도사(주지 원산)가 4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7천 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사진 오른쪽),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사진 왼쪽)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전달식은 성수 대종사 영결식 후 스님들의 여비를 모아 마련된 기금이라 더욱 의미 깊은 기부가 됐다. 자승 스님은 “영결식을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번 기금 전달은 불교계 장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산 스님은 “스님께서 꽃 피는 시절에 고통 없이 열반했다. 새로운 종정 스님도 오시고 날씨가 좋아서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며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기탁금은 논산군법당 건립 5000만원 및 완화 의료전문병원인 울산 자재병원에 각각 2000만원씩 전달된다. 정혜숙 기자



위안부 할머니 제주도 여행 나서

동행, 나눔의 집 어른식 추억 선물 제공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어르신들이 제주도 여행을 선물로 받았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여행 봄나들이를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3·1절을 맞아 나눔의집을 위로 방문했을 때 날이 따뜻해지면 제주도로 나들이를 가지고 약속했다. 이를 지키고자 여행을 지원해드렸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여행은 가파도와 마라도 탐방을 시작으로 할머니들의 추억만들기가 진행됐다. 할머니들은 돌팻날의 기예단 쇼도 즐겁게 관람했다. 정혜숙 기자

“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영동복지관 가족 프로그램 진행

영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4월 21일 ‘The-좋은 아빠 교실’을 진행했다. 이는 수원 영동 지역에서 ‘좋은 아빠’를 희망하는 신청자와 그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아빠사랑요리대회 ▷아빠와 함께하는 역할극 ▷아빠탐구 퀴즈대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영동복지관은 5월 19일에도 좋은 아빠가 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해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혜숙 기자

제15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제15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원로부문에 김종규 삼성박물관장(사진)이 선정됐다. 국내최초의 출판인쇄전문 삼성출판박물관을 설립한 김 장관은 2004년 서울세계박람회대회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으로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신종일 기자

제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제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에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준강 이사장(사진)이 선정됐다. 시상단체인 호암재단은 이 이사장 선정 이유로 “자신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제주 지역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의료시설 등을 건립해 30년동안 생산적 복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2급 중증장애인이인 이 이사장은 1987년 사회복지법인 준강을 설립해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을 개원해왔으며, 현재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장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회장 등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골퍼 꿈나무가 산사 간 까닭은?

문화사업단, 신록사서 양용은 선수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4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여주 신록사에서 양용은 프로골퍼와 골프 꿈나무 10여 명이 함께 하는 ‘멘토와의 행복한 만남’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양 선수와 골프 꿈나무들은 1박2일간 예불, 명상,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 사찰에서의 일상을 체험했으며,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PGA 스트레칭과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 등 경기 노하우를 전수했다.

양 선수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여러 고민을 가진 아이들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해 10월 템플스테이 홍보대사로 임명된 양 선수는 내년 봄 시즌을 마치고 한국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의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PGA 챔피언 양용은 선수와 신록사 해운 스님, 참가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영화티켓 헌혈증과 바뀐 기부

클럽버스 영화관 생명나눔에 3960장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4월 23일 클럽버스 영화관 하남점(점장 임재홍)으로부터 소아암 백혈병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증 3960장을 전달받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전달된 헌혈증은 클럽버스 영화관이 일반인들에게 무료 관람티켓을 제공하고 기부받은 것이다. 클럽버스 영화관 하남점은 지난 2004년 2000매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3억 2460매를 지원했다.

생명나눔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헌혈증은 13억원 상당(장당 3만9000원)으로 뜻깊은 곳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된 헌혈증은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난치성소아암백혈병환우에게 무상으로 지원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클럽버스 하남점 임재홍 점장으로부터 헌혈증을 건네받고 있는 현지 스님

活山堂 性壽大宗師 元老會議葬 奉行에 대한 人事말씀

歸依三寶하옵고

지난 4월 15일 涅槃하신 曹溪宗 元老議員이신 活山堂 性壽大宗師의 元老會議葬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조전 등으로 조위를 표해주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人事울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惠諒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佛紀 2556(2012)年 4月 19日

活山堂 性壽大宗師 49齋 日程

Table with 4 columns: 49齋, 장소, 일시, 연락처. It lists the schedule for the 49-day observance, including dates and locations like Tongdo Temple.

曹溪宗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靈鷲叢林 通度寺 活山堂 性壽大宗師 門徒一同